최우선, 절대시

2013년 9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건축발전에 기여하고있는 한 돌가공공장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돌가공실태와 설비들의 가동정형, 기술적특성을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어느한 작업반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거대한 기계들이 돌아가는 작업현장에 들어서시여 노동자들이 올리는 인사도 받아주시고 돌가루 묻어나는 가공품도 귀중한 보배덩이런듯 쓸고 또 살펴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문득 일군들에게 공장을 돌아보니 소음이 너무 세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일군들은 굳어졌다.

말그대로 돌가공공장인지라 작업때 소음이 좀 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으로 여기고있던 그들이였다.

그러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활상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